

2025 01
통권 297호

티움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성유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목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박노경 테레사
(하망동 본당 성가대 지휘자)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저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2 코린토서 12장 9절)

성경 말씀은 모전동 본당의 여운숙 바울라님의 글씨입니다. 자매님은
고1 때 세례를 받은 후부터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매일,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내면서도 이
힘들, 약함이 곧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
것까지 감사」드리며 사는 자매님은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
해 두 손을 모읍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세계 기후 위기

5.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며 위장하거나 상대화하려고 하여도, 기후 변화의 표징들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극단적인 현상들, 잦은 이상 고온, 가뭄 그리고 지구의 다른 부르짖음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덮친 소리 없는 질병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 재난을 세계 기후 변화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초래한 몇몇 기후 변화들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온도가 섭씨 0.5도 오를 때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이,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폭설이 발생할 강도와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폭염을 겪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지구 온도의 섭씨 1.5도 상승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폭염은 더욱 자주 발생하고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상승 폭이 섭씨 2도를 넘어간다면 그린란드의 빙하와 남극 대륙 상당 부분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 버릴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고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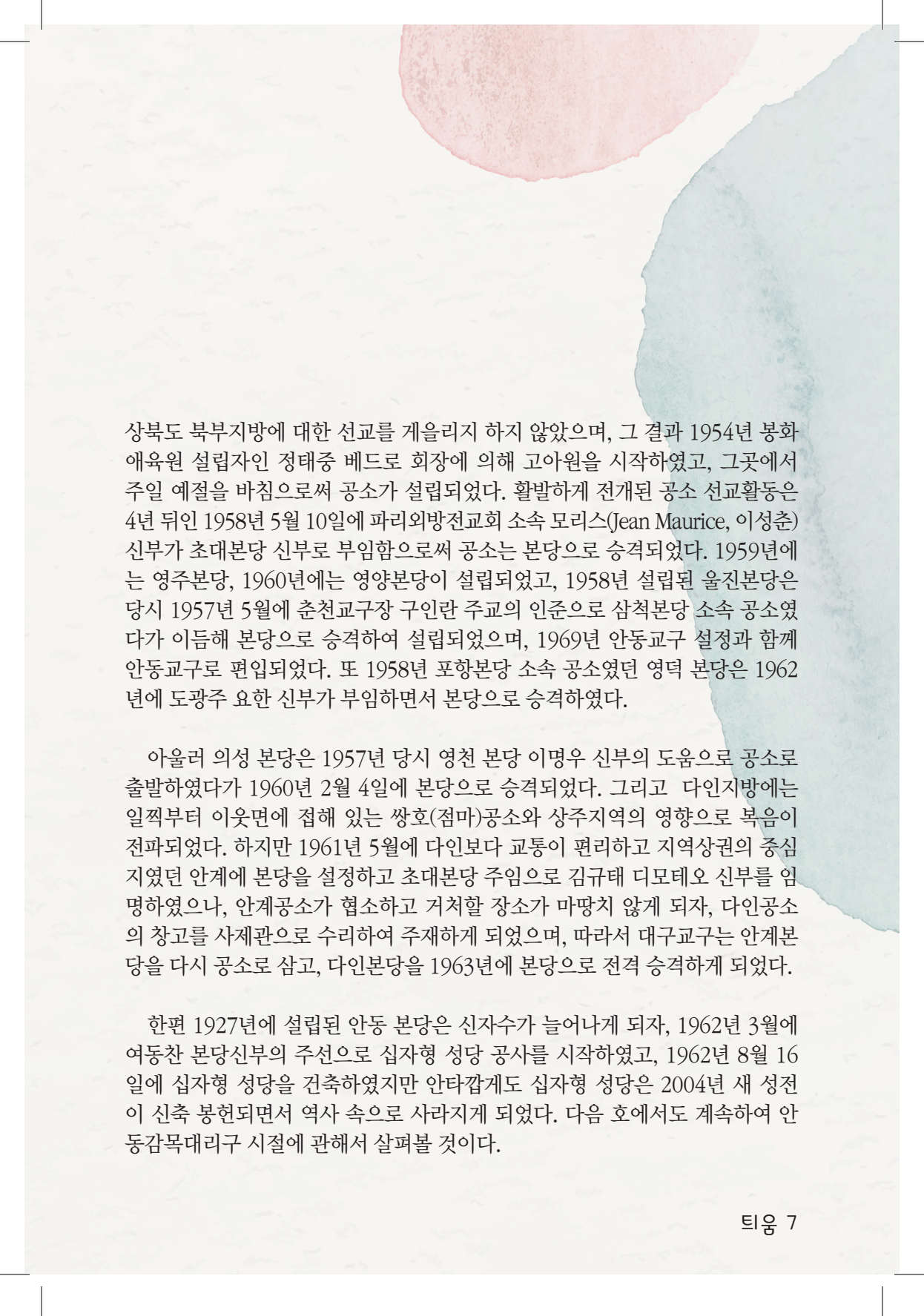
“안동 감목대리구 시절과 발전”(1)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2년 2월 20일, 대구교구장 서정길 요한 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할레르 신부의 후임으로 같은 소속 구인덕 첼레스티노 신부를 제2대 안동 감목대리구의 감목대리로 임명하였다. 구인덕 신부가 안동감목대리구에 속한 관할 구역에 관한 1962년 봄철에 파리외방전교회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1958년 서정길 주교와 파리외방전교회 총장인 모리스 신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안동지방을 한국의 마지막 보루로 받게 되었다. 관할지역은 8개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면적은 5,000km²로 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역삼각형 모양이다. 포항은 삼각형의 꼬리 점이고 넓이는 180km²이며, 남한만 생각하면 인구가 비교적 적지만, 총인구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산도 많고, 돌도 많고, 바다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성격도 거칠고 고집이 세다. 전통적인 습관이나 풍습도 아직까지 아주 심하게 남아 있고, 뒤떨어진 양반의 전통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깊이 사귀려면 어렵다. 농사도 보잘것없고 수확도 부족하다. 생활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다음 추수 때까지 나무 껍데기와 나무 뿌리를 캐 먹는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만들려면 그 전통이나 풍습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한한 영일군과 포항시와 항구는 다르다. 바깥 세상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안동지방은 지나치게 전통을 지키고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과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도로 사정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포항시에 큰 도로 외에는 아스팔트 길이 없다. 중요한 도로는 물론 군과 군을 연결시키는 도로들이다. 그리고 면과 면을 연결시키는 도로들이고, 이 길로만 한국의 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다. 그 외에는 도로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길 아니면 오솔길이다. <중략>

제2대 안동감목대리구 구인덕 감목대리 신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당시의 안동교구 내 상황을 비교적 진솔하게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안동감목대리구는 경



상북도 북부지방에 대한 선교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54년 봉화 애육원 설립자인 정태중 베드로 회장에 의해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주일 예절을 바침으로써 공소가 설립되었다. 활발하게 전개된 공소 선교활동은 4년 뒤인 1958년 5월 10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모리스(Jean Maurice, 이성춘) 신부가 초대본당 신부로 부임함으로써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1959년에는 영주본당, 1960년에는 영양본당이 설립되었고, 1958년 설립된 울진본당은 당시 1957년 5월에 춘천교구장 구인란 주교의 인준으로 삼척본당 소속 공소였다가 이듬해 본당으로 승격하여 설립되었으며, 1969년 안동교구 설정과 함께 안동교구로 편입되었다. 또 1958년 포항본당 소속 공소였던 영덕 본당은 1962년에 도광주 요한 신부가 부임하면서 본당으로 승격하였다.

아울러 의성 본당은 1957년 당시 영천 본당 이명우 신부의 도움으로 공소로 출발하였다가 1960년 2월 4일에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다인지방에는 일찍부터 이웃면에 접해 있는 쌍호(점마)공소와 상주지역의 영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지만 1961년 5월에 다인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상권의 중심지였던 안계에 본당을 설정하고 초대본당 주임으로 김규태 디모테오 신부를 임명하였으나, 안계공소가 협소하고 거처할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되자, 다인공소의 창고를 사제관으로 수리하여 주재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대구교구는 안계본당을 다시 공소로 삼고, 다인본당을 1963년에 본당으로 전격 승격하게 되었다.

한편 1927년에 설립된 안동 본당은 신자수가 늘어나게 되자, 1962년 3월에 여동찬 본당신부의 주선으로 십자형 성당 공사를 시작하였고, 1962년 8월 16일에 십자형 성당을 건축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십자형 성당은 2004년 새 성전이 신축 봉헌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 호에서도 계속하여 안동감목대리구 시절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청년들의 오아시스, 청년회

천주교 안동교구 청년연합회
갈전마티아 본당 권영창 대건 안드레아

오늘 세계적인 영국 락 밴드 오아시스(Oasis) 내한 공연 티켓 예매에 실패했다. 정말 가고 싶었던 공연이라 티켓 오픈 시간에 맞추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에 밀려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 한 밴드의 공연이 단 몇 초 만에 매진된 상황을 보며, 문득 이런 치열한 경쟁과 열정이 신앙 활동에서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아시스의 공연 티켓은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려 했으면서, 정작 하늘나라의 입장권인 주님의 은총과 구원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열망은 그만큼 간절했던가?

이 시대의 청년들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삼포세대, 오포세대라는 수식은 그 목마름을 표현하기에 한참 부족하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알려준 길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포기한 것들만 투성이고 혼자 서 있는 공허함에 외롭기만 하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무엇 하나 확실하게 선택하기가 두려워 아이처럼 갈팡질팡할 뿐이다. 밴드 오아시스는 이런 불안함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곡을 만들어 정말 청년들의 목을 축여주는 오아시스가 되었다.

물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고 해서 갈증이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아시스의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물을 정화하고 쉼터를 마련하면서, 비로소 그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자원이 된다. 이처럼 오아시스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청년회 또한 그러하다. 청년회는 신앙의 오아시스다. 성당에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님을 즉각적으로 만나거나 깊은 신앙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청년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라는 오아시스에 모인 신자들이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일상을 나누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아마 네가 나를 구원해 줄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몰라.)

밴드 오아시스의 곡 Wonderwall(구원자)이 전하는 이 가사는 단순한 구원자를 찾는 노래가 아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 구원자가 이미 곁에 있음을 암시한다. 성당에서 만나는 동료 신자들, 특히 같은 청년 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Wonderwall이 된다. 오아시스를 둘러싼 나무와 그늘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것처럼, 청년 신자들은 서로의 삶을 지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을 돕는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오아시스와 구원자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한 줄 요약:

목마른 청년들이여, 본당 청년회, 지구 청년회, 교구 청년회로 오라! 티켓 많음!

마원성지에서 가져온 진삼과 연삼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2024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저녁식사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싱크대 옆에 약초로 보이는 것들이 놓여 있었다. 집사람이 용상동 성당 코이노니아 회원들과 문경 마원성지로 성지순례 갔는데 마원진안리성지 담당 정도영 신부님께서 직접 동행하여 한실교우촌 가는 길에 백화산(1,063m)에서 먹어보라며 직접 캐어주시기도 했고 또 일행들이 캔 것이라고 한다. 거기서 몇 뿌리는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어떤 약초인지 궁금하여 가져왔는데 신부님께서 하나는 진삼이라고 했고 다른 건 연삼이라며 약효와 먹는 법까지 설명해주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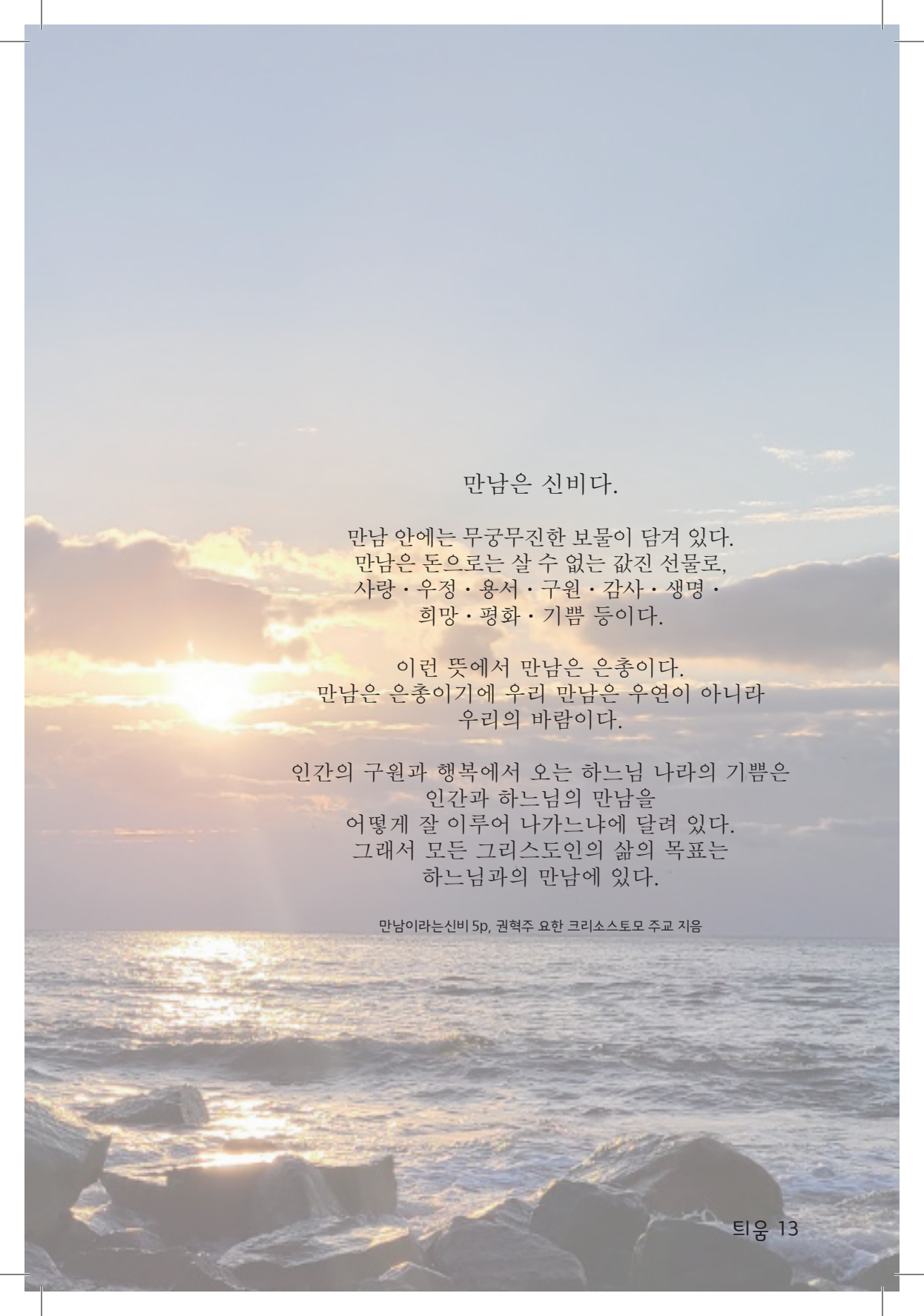
어디보자! 약초가 시들긴 했으나 잎과 뿌리를 살펴보고 씹어 맛을 보니 둘이 분명 달랐다. 진삼은 달아서 먹기 좋았지만 연삼은 쓴 맛이 강해 먹기 거북했다. 이럴 때 큰 가르침을 주시는 게 구글과 네이버 지식창고라 노트북을 열고 검색해보니 바로 나온다. ‘오호라! 진삼(珍蔘)은 큰참나물을 말하는 거네.’ 근데 이건 한의사들이 약으로 잘 쓰지 않는 거다. 미나리과에 속하며 산삼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산삼은 가지에서 잎이 다섯 장이 나오지만 진삼은 석장이 나오고, 뿌리에 뇌두가 약하고 본 뿌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가늘고 길게 뻗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할 수 있다. 맛도 산삼은 쓴데 반해 약간 맵지만 달달하다.

민간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에 특효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테고, 그냥 먹어서 기운 나고 탈은 없을 테니 배고플 때 구황식물로 약초꾼들이

먹어서 진삼(보배로운 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 같다. 그리고 연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물 뿌리인 한약재 전호(前胡)다. 성질이 차고 맵고 쓰지만 폐·기관지를 잘 고쳐주는 약이라 아주 쓰임이 많은 약재다. 독성은 없으나 과량 섭취하면 복통 설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 진삼과 연삼은 백화산의 7-8부 계곡 능선 마원성지에서 한실교우촌으로 가는 길에 특히 많다고 한다.

이 약초는 왜 특별한가? 1866년 병인박해 때 복자 박상근마티아(1836~1866)가 한실에 은거해있던 칼레신부님(1833~1884)을 뵈고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신의 문경 집에 모시고 왔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주민들에게 들키자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백화산을 넘어 한실교우촌까지 모셔주려 갔는데 서두르는 바람에 중간에 기진맥진하였다. 칼레신부님께서 그런 마티아에게 나 혼자 가도 괜찮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마티아가 울며 돌아가지 않으려는 걸 끝까지 순명하라며 돌려보내었다고 한다.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걸었던 우정의 길에서 기력이 쇠진하였을 때 캐어 드셨을 진삼과 연삼, 그래서 각별해 보인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만남은 신비다.

만남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이 담겨 있다.
만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선물로,
사랑 · 우정 · 용서 · 구원 · 감사 · 생명 ·
희망 · 평화 · 기쁨 등이다.

이런 뜻에서 만남은 은총이다.
만남은 은총이기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서 오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은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다.

만남이라는 신비 5p,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가은 본당 성유공소

Q : 공소 미사 전에 종을 치네요

전 공소회장 : 본당 종소리가 우리 공소까지 안 들립니다. 종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성유공소에서 하느님의 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종소리를 지켜 왔습니다.

여신자 1. : 저는 남편이 착실한 신자여서 저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자가 많아서 공소 생활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 신자 수가 네 명까지 줄어들어 공소문을 닫으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사람들 더 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타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어 공소가 부활하여 요새는 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공소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소회장 : 저는 오랫동안 함께하던 풍물 동아리 친구들과 대구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가정 중에 절반 정도 되는 12명이 신자인데, 그분들 중에 5명이 오늘 미사에 나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오니 공소 문을 닫을 상황에서 계속 공소가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저희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소는 매달 첫째 주 공소예절을 마치면 집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식구'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 말 그대로 우리 공소 사람들은 서로 식구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신자 3 : 저는 이곳 고향에 온 지가 삼 년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을 너무 잘 모시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신자 4. :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이 좋아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 이곳에 정착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빨리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신자 5 : 우리 공소는 신부님까지 배출한 공소입니다.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이 우리 공소에서 나신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바로 내 조카입니다. 저는 5년 전까지 절에 다녔는데 마을 동생의 권유로 그날로 공소에 나와 세례받고 성당에 나오니 너무 좋습니다.

성유공소의 역사는 1957년경 농암 읍수에 살던 신상철 아오스딩 형제가 오재구의 사랑방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시작되었다. 1959년경 공소부지를 매입하고 1961년 공소 건물을 신축 봉헌하였다. 장기택 야누아리오 형제는 40여 년 가까이 공소회장직을 맡아 공소를 지켜왔고 오랜 시간 공소 신자들과 함께 활발한 농민회 활동도 하였고, 지금은 귀촌해 온 변요한 보스코 형제에게 새 회장직을 맡겼다.



찬미받으소서 121항-130항

- 121항 그리스도교는 그 ()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 122항 그릇된 ()는 그릇된 생활 양식을 낳습니다.
- 123항 ()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빚을 명분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과 다름없는 질병입니다.
- 124항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 125항 우리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말할 때, 현실에 대한 인간 활동의 ()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 126항 ()이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 127항 “계속하여 모든 사람의 안정된 ()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128항 단기間に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를 중단하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위입니다.
- 129항 행정 당국은 ()생산업자들과 그들이 생산하는 품종의 다양성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130항 동물에 대한 실험이 “()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할” 때에만 정당하다고 가르칩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하여 선정된 분들에게 보내드린 간식을 맛있게 즐깁니다.

정답은 1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7383-3114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상	대	주	의	문	화	인	평
란	한	당	합	자	간	일	기
추	필	산	투	중	례	사	디
적	표	적	심	명	막	만	잔
목	인	주	초	현	원	단	영
와	의	움	로	새	한	원	영
미	군	소	감	니	성	점	순
의	곡	언	나	장	보	용	고

11월 당첨자

유성예 마리아 (태화동 본당)

김미영 베로니카 (모전동 본당)

염정남 베로니카 (계림동 본당)

김희옥 크리스티나 (개운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16 -생명의 밥상 차리기 1-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밥은 생명입니다. 밥 한 그릇에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들어 있고, 밥 한 톨은 농민, 땅, 비, 태양, 바람 등 온갖 못 생명들이 만들어낸 종합작품입니다. 밥은 주권입니다. 식량자급률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는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밥은 자존심입니다. B.C. 21세기경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온 정신과 혼과 문화가 담긴 한민족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밥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밥상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나라의 주권을 지켜 내는 일입니다.

1. 밥이 좋은 이유

일본 도쿄 해양대 대학원의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밥이 빵보다 스태미나 유지와 지방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이 몇 년 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밥에는식이섬유와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 전분이 미량 들어 있는데 이들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밥의 단백질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만과의 전쟁 중인 미국에서 밥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 때문에 아주 경이적인 식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PCRM 병원의 버나드 박사는 밥 중심의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만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이 눈에 띄게 효과를 보았고 식이요법으로 암의 진행 속도도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 문제의 해법이 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라한 밥상>의 저자인 미쿠우치 히데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며 가공하지

않고 열매로 먹는 식품으로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이 줄어들어 건강을 지키는 최대 포인트다.” 밥은 동양 의학에서 중용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혈액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략 여덟 살 정도에 식습관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그 이후에는 식습관이 흐트러진다 해도 건강의 위험선을 넘지 않습니다.

2. 한국의 지리, 기후조건과 논농사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논밭이 전체 국토의 20%밖에 안되지만 외국에 비해 농업 생산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하고, 겨울 혹한기와 여름 혹서기 사이의 기온차이 또한 심합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하고 동식물은 강합니다. 같은 종자라도 우리나라 인삼의 약효가 우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한 농가가 먹고사는 데 대략 7ha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ha 정도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밭이 많아 계속 경작할 경우 땅심이 떨어지고 연작 피해가 심해서 초지와 경작지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하기에 토지 이용률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업도 경쟁력이 강하다곤 하지만 보장이 없습니다. 동부에서는 물이 풍부하지만 곡창지대인 중서부에서는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데 스프링클러가 닿는 곳만 작물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농업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식 생활인 초지에서 들소를 잡아먹고 살았던 옛날 생활이 원래 기후조건에 맞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모작으로 경지 이용률을 200% 올릴 수 있습니다. 논지가 거의 경작지입니다. 논에서는 벼와 보리를 재배하고 밭에서는 콩과 밀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논농사의 비밀은 물에 있습니다. 수도작(水稻作)은 기적의 농법입니다. 비료를 특별히 쓰지 않고 논에 물만 대도 70%의 소출을 냅니다. 물은 산에 있는데 산은 엄청난 물 저장고입니다. 서부경남이 과거 비옥한 땅이었던 것은 지리산이 있어서 가뭄 피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은 본당 성작

(1950~60년대 추정, 높이 14cm * 지름 9.9cm)



이 성작은 가은 본당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어떤 신부님이 사용하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성작은 미사 봉헌만을 위해 사용되므로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며 전례 용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된다. 성작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기존에는 적어도 은으로 된 성작과 성반을 도금하여 사용하게 하던 것을 1969년 이후에는 교회가 금했던 재료를 일부 허용하고 구리, 주석, 청동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잔의 안쪽은 반드시 도금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 성작은 간결하며 단순한 선에서 현대적인 미가 풍기며 받침 부분의 음각의 철십자 문양이 독일 제품이란 느낌을 주기에 가은본당 초대 지인수 신부님이 쓰시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목성동 본당의 성반

(길이 31.5cm * 지름 16cm, 제작년대 미상)



이 성반은 목성동 본당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입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성체와 그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사가 들고 턱밑에 대어 받치는 역할을 하였는데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 성반은 2002년 (구)목성동 성당을 철거할 때 서문동 본당의 권옥순 아가다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교구로 전달해 주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윗면은 도금이 벗겨지고 일부 부식이 된 상태이나 밑면의 상태는 양호하다.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성반이 그 당시 기억을 불러내며 아련한 추억들을 떠오르게 한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편103,1)

박노경 데레사
하망동 본당 성가대 지휘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 하망동 본당의 성가대 지휘자 박노경 데레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교사 생활, 강의, 공연과 성가대 봉사를 해왔습니다.

달란트의 발견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삼촌들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어린 저에게 노래를 시키곤 하셨지요. 조금 더 크면서 중학교 때 성악을 처음 접하고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계 고등학교에서 수녀님께서 오디션을 보고 노래에 재능있는 시골 학생 몇 명에게 성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었고 다행히 음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교심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지금까지 받았던 하느님의 사랑과 수녀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제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도 봉사했지만, 음대를 졸업하고 영주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계기는 20대 후반이었던 제게 휴천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신설되는 하망동성당의 성가대 지휘자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망동 성당의 축성미사부터 봉사했으니 벌써 37년이나 되었네요.

나눔의 기적

언젠가 제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성가대 봉사가야 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을 아시고 주변 분들이 김치도 해주시고 집에 불러 밥도 해주시면서 저의 건강 회복을 도와주셨어요. 그후 기적처럼 병이 치료되었어요. 많은 사랑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성가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축일에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지요. 성가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



리가 부러져서 의자에 앉아서도 지휘하고, 아이를 업고도 지휘하고, 어린 아들은 신부님 방에, 어린 딸은 수녀원에서 잠을 재워가며 성가 연습을 하면서 이 꿈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찬미

제가 아들을 낳고 몸조리할 때 시어머니께서도 십자고상 앞에 물과 미역국을 차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불교 신자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지요. 제자 하나가 비신자였는데 지금은 저의 막내 동서가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후 저와 함께 하망동 성당 성가대 반주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 빠지지 않았지만, 저의 동서는 25년 동안 한주도 거르지 않는 성실함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수취폐 도미네

수취폐 도미네는 안동교구에 속한 혼성 중창단입니다. 신기룡 신부님께서 만드시고 저희 중창단과 함께 다니면서 신자들을 위해 피정을 이끄십니다. 저희를 청하는 본당에 찾아가서 음악 피정, 사순·대림 피정에 찬양 봉사를 하고 있고 타 교구에도 초청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램

저는 교구에 연합합창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미사에 연합합창단이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엄마처럼 못 해요’라고는 하지만 성악을 전공한 아들과 막내딸에게 저의 이 길을 물려주고도 싶습니다. 제가 늘 맘에 새기는 성경 구절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오 22,37)’는 말씀입니다. 레지오나 꾸르실료등 성당의 다른 많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해 마음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김정용 지음

“

순례는 그저
고행이 아니다.
마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설레고 신나는 여정이다.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을
만나는 행복한 여정이다.
예수님의 순례가
그러하였다.

”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느 때 보다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희년을 지내는 모든 이가 가장 작은 이들의 희망이며, 희망을 향해 굽힘 없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 길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나누길 바라며 희년의 역사와 요소,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희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희망의 순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서도록 초대합니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쉬었다 갑시다

최한별 사도 요한 신부
남성동 본당 보좌

찬미 예수님 ~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끝이 시린 겨울이지만, 새해가 찾아왔기에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시기이지요. 이미 가톨릭의 달력, 전례력으로는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연말이라 회사에서는 일을, 이웃과는 약속을, 성당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12월을 마무리했던 지금,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작년에 이루지 못한 목표들을 올해 다시 세워보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들도 그려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입니다. 취미도 이것저것 가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끌리는 것들을 다하고 싶은 만큼 열정은 있지만, 관심사가 많아서 그런지 주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곤 합니다. 정녕 내가 못나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작심삼일이 되는가?

작심삼일이라는 이론은 6단계를 거칩니다. ‘무관심(전숙고)’에서 시작하는 다짐은 어떤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숙고 단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준비 단계’, ‘실행단계’, 목표를 이루면 ‘유지단계’, 유지 중 변화가 오면 ‘재발 단계’. 변화는 여러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각 단계들을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이루는 단계들이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뇌과학은, 박약한 의지력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새해의 계획을 이루기 힘들고 지칠 때, 싫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겠죠. ‘삶이란 여행과도 같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에서 최고치가 100이라는 숫자라면, 어떤 사람은 100을, 어떤 사람은 80을, 어떤 사람은 50 이하를,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그 숫자가 크고, 작고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순간이 최선이었으니 굳이 숫자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작년 한 해의 목표들이 작심삼일로 마무리되고,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잠시 쉬어갑시다. 쉬어간다고 해도 최선을 다 안 했다고 가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여행 안에서 이루고, 이루지 못한 계획은 여행의 한 페이지가 되어 우리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쉬면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평화와 희망의 여정 위에서

김병욱 가브리엘
학부3, 용상동 본당

찬미 예수님!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1월, 파사로이 떠 오르는 새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11월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은 성 야고보 사도가 선교를 위해 걸었던 길입니다. 또한,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순례자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프랑스 ‘생장 피에 드 포르(Saint-Jean-Pied-de-Port)’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까지 약 800km 정도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800km나 되는 길을 한 달 정도에 걷는 일정이다 보니 하루에서 20~30km 많으면 40km까지 걷게 되기도 합니다. 무척이나 특별하고 은혜로운 여정이지만, 하루하루 걷다 보면 항상 즐겁고 편하지만은 않곤 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발걸음을 옮길 때면, 발바닥과 발목은 항상 아프고, 발에는 물집이 생겨서 쓰라리곤 합니다. 너무 아프고 지쳐서 가끔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Buen Camino! (부엔 까미노!)”

그런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어디선가 이런 인사말이 들려옵니다. 스페인어로 ‘좋은 길’이라는 의미의 이 인사말은,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행복과 평화, 안녕을 빌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그 한마디 말에 저의 불안과 걱정은 희망이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역경을 헤쳐나갈 인내가 샘솟습니다.

누군가에게 평화를 건네어 준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희망이 다시금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느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 숨쉬는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자량이 되고(로마 5,2),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활력을 주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2025년 정기 회년 ‘희망의 순례자들’을 선포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순례의 여정과 희망 안에서의 인내로 초대하십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과 낙담으로 얼룩진 세계에서 기쁘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고 요청하십니다. 회년의 시작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은혜로운 순례 여정 위에서, 이제는 제가 받았던 평화와 희망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Buen Camino! (부엔 까미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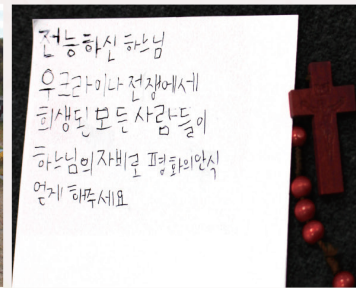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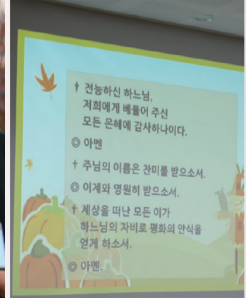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11월 17일(주일)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은 위령 성월을 맞아 놓은 성직자 묘역과 봉안경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위령 성월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를 듣고, 성직자 묘역에 서는 돌아가신 신부님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함께 묵주기도를 봉헌하였습니다.





알 림

1.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일 시 : 1월 21일(화) - 22일(수)

장 소 : 화령성당 및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4년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김경수	50,000	최경희	20,000	신미란	10,000
가 은	618,000	김근희	5,000	최소영	20,000	양수모	10,000
계 림 동	832,000	김길자	50,000	최영옥	10,000	이길선	10,000
남 성 동	2,000,000	김정은	10,000	탁인자	30,000	이영섭	20,000
모 전 동	740,000	김현정	20,000	황상호	30,000	정순진	10,000
안 계	371,000	김혜경	10,000			정옥남	10,000
의 성	2,138,500	김혜자	400,000	월 모 임 편		정지혜	5,000
춘 양	1,920,000	박승철	10,000	강면식	20,000	현희성	10,000
		박종대	10,000	김단희	50,000	황재혜	5,000
교구 내 기타		변진의	10,000	김애숙	140,000		
김정현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설영숙	20,000	라스베가스 한인 성당	
백동수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심재임	20,000	2,771,055	
서동호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정정숙	2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용찬	50,000	황인숙	120,000	성 분 도 치 과	
정양모 신부	100,000	안명숙	20,000			100,000	
정철환 신부	10,000	안안택	10,000	이 길 선 편			
박보라	10,000	위은숙	10,000	강명희	5,000	안 동 신 협	
박정렬	20,000	유병현	10,000	권기섭	10,000	100,000	
서영림	10,000	이귀호	10,000	권순옥	10,000		
이가엘	10,000	이임영	50,000	김중향	5,000	은총의 거울 Pr	
		이정숙	20,000	김지은	10,000	25,000	
		이호숙	10,000	나양수	30,000		
타교구 개인		장준영	10,000	박노정	10,000	정의의 거울 Pr	
강윤순	5,000	정경자	20,000	박영신	20,000	20,000	
권양일	10,000	정재식	50,000	백형숙	10,000		
김건화	10,000	정태진	20,000	변우경	5,000		
김경란	20,000	조원준	10,000	송 경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하루를 무려 다섯의 뜻을 살펴보고
하리를 골려 따의 수고로움을 헤아릴 줄 아는
웃부가 되게 하소서.

의외나 주님,
먼신께서 돌보아 주신 이 땅을 지키며
우부의 화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희에게 이들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五ノ七ノ七ノ七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